농식품부·농정원, 스마트농업 데이터 활용 성과 공유

전국 5개 품목 60농가 데이터 구축…AI 기반 영농 의사결정 고도화



▲11월 11일 청주 오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인공지능(AI)과 스마트농업 데이터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데이터 활용 확대에 나섰다.

농정원은 지난 11일 청주 오스코 컨벤션센터에서 농식품부와 데이터 활용 기업, 지역거점 우수농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식품 ICT 융복합 촉진 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팜코리아에서 개방·공유하는 농업 데이터의 활용 성과를 점검하고, 농업 현장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정원은 현재 전국 5개 품목 60농가를 대상으로 환경·제어·생육 정보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완결형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농업인의 작업 의도와 판단, 결과를 결합한 인공지능 전환(AX) 데이터 구축을 추진해 영농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민간기업 3곳이 데이터 기반 기술의 현장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팜커넥트는 스마트팜코리아 실측 데이터를 활용해 오이 생육 이미지 분석 AI 모델을 개선한 결과, 엽폭 측정 오차가 10% 이내인 비율을 55%에서 73%로 높였다고 밝혔다.

라이트플라이어는 농업 전문 용어에 특화한 음성인식 모델을 통해 영농 상담 통화의 문자 오류율을 10.45%까지 낮췄으며, 골든플래닛은 토마토 열과 위험 예측모델을 소개했다.

우수농가 발표에서는 데이터 기반 환경제어를 통해 파프리카의 평당 생산량을 20% 높인 사례가 주목받았다. 딸기와 토마토 농가도 생육·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온도와 관수량을 조절하고, 재배 경험을 객관적인 관리 지표로 전환한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 농업인들은 센서 이상 알림과 기자재 유지보수, 데이터 서비스의 실효성 개선 등을 건의했다. 농정원은 현장 의견을 검토해 데이터 품질과 서비스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데이터 기반 영농 우수 농업인 3명에게 농식품부 장관상이 수여됐으며, 데이터 수집에 참여한 우수농가 22곳에는 인증명패가 전달됐다.

김지훈 농정원 본부장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만큼 농업인이 이를 활용해 소득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농진청, K-푸드 수출 확대 맞춰 쌀 가공업 육성 강화



▲식량원 쌀 가공식품 민관협의회 모습

쌀 가공품 수출 상반기 27.8% 증가

한류 열풍에 힘입어 떡볶이와 냉동 김밥 등 K-푸드 수출이 증가하면서 쌀 가공식품이 국산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쌀 가공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출시장 확대에 대응한 가공용 쌀 품종 개발과 제조·유통 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은 18일 충북 청주시에서 쌀 가공산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쌀 가공 농산업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식품연구원, 순성농협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쌀 가공식품 수출기업인 하늘바이오와 이노하스, 품종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쌀 가공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수 수출 사례와 가공용 쌀 품종 개발 현황, 수출 지원 기술 등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쌀 가공식품의 해외 유통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떡볶이 떡의 상온 유통 기술을 개발해 산업체에 이전했으며, 현재 냉동 김밥에 적합한 쌀 품종 선발과 제조공정 개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우리 식문화에 기반한 나물밥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 전략형 간편식 개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협의회에서 제안된 현장 의견을 향후 연구 방향과 정책·기술 지원에 반영하고, 기업 수요에 기반한 실용화 연구와 산·학·연·관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상범 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장은 "최근 한류 열풍으로 쌀 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쌀 소비를 견인하고 있다"며 "쌀 가공식품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발 기술과 산업체를 연결하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농기평, FAO와 농식품 공급망 AX 혁신 방향 모색

AI·디지털트윈 기반 기술개발·협력의제 논의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Alessia Correani 혁신담당관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은 지난 11월 13일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디지털트윈포럼, 스마트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공급망 AX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혁신담당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FAO의 농식품 공급망 혁신 경험과 국내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 기술 역량을 공유하고, 국내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방향과 국제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농식품 공급망은 생산·유통·가공·소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확실성과 단계별 정보 단절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AI를 활용해 상황을 인지·예측하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급망 AX(AI전환)'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기조발표에서는 FAO 혁신담당관이 'Co-Designing a Future-Proof Coffee Ecosystem'을 주제로 커피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FAO의 농식품 공급망 AX 접근법과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현장의 문제를 이해관계자와 함께 정의하고, 데이터와 디지털트윈 등을 활용해 해결 방안을 구체화한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데이터 연계·관리 방식과 기술의 확장 가능성 등을 다뤘다.

국내 전문가 발표에서는 김기배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농업 공급망 AX와 온톨로지 기술을 소개하며 공급망 데이터를 지식화하고 AI의 상황 이해와 의사결정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강진택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국내 임업 AX 정책과 기술 현황을, 안다미 퓨처센스 대표는 AI·블록체인 기반 식품산업 AX 기술을 활용해 블록체인 이력 검증을 통해 기존 농산물 중심의 기술을 가공·수출(K-Food) 단계까지 연계·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기평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해외 경험과 국내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한 국제기구와 국내 연구기관·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농식품 분야 AX 전환을 준비하고,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R&D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 축산경제, 방역복 2만 벌로 축산농가 방역 힘 보탠다

가축질병 유입 및 전파 차단에 총력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는 16일 한국신지식인협회(회장 김종백), 씨앤씨패브릭(대표 최규보)과 함께 6억 원 상당의 방역복 2만 벌을 축산농가에 전달한다.

최근 소 럼피스킨(LSD) 등 가축질병 확산세가 커진 가운데, 농협은 지난해에 이어 한국신지식인협회와 방역복을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가축질병의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농가를 위해 방역복을 기탁해주신 한국신지식인협회와 씨앤씨패브릭에 감사드린다"며 "농협은 적기에 방역복을 축산현장에 전달해 가축질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농축환경신문
1998년 10월 26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다 06693
(04071)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0, 성지빌딩 601호
기사제보 전화 : 02-582-4016 팩스 : 02-582-4002
광고신청 전화 : 02-582-4016
이 메 일 press@nonguptimes.com
홈페이지 www.nonguptimes.com
자 매 지 농업경제
발행인·편집인
한명덕 | 편집국장 김대경 | 인쇄인 이정자
구독신청·배달안내 02-582-4016
구독료 월 8,000원 / 년 80,000원
농협은행 301-0328-9561-51 ㈜농축환경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도매시장 거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경매·입찰
품목별로 정해진 시간에
공개적·경쟁적 거래를 통하여
수급사정을 반영한 가격에 낙찰



정가매매·수의매매
출하자와 구매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조건(가격, 물량 등)을 기초로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거래를 주관



전자거래(상·물 분리거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면
물건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송



예약거래
도매시장법인과 상의하여
미리 예약거래
(3일, 7일, 한달, 시즌별 등)

사단법인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06774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804호 (양재동, aT센터)
Tel 3401.4001 Fax 3401.4002 e-mail kawa@kawa.or.kr

회원법인명단
서울 서울청과㈜ 02-3435-2000 ㈜중앙청과 02-3435-3700 동화청과㈜ 02-3435-7000 대아청과㈜ 02-3435-8800 부산 부산청과㈜ 051-320-5000 항도청과㈜ 051-317-6611 동부청과㈜ 051-666-5000 부산중앙청과㈜ 051-666-2000 대구 효성청과㈜ 053-311-3321
인천 ㈜대인농산 032-435-1112 인천농산물㈜ 032-421-3766 덕풍청과㈜ 032-438-9380 ㈜경인농산 032-507-6800 ㈜부평농산 032-521-2345 광주 광주청과㈜ 062-528-6100 광주중앙청과㈜ 062-528-6311 ㈜호남청과 062-612-6000 대전 대전중앙청과㈜ 042-477-6665
울산 울산중앙청과시장㈜ 052-267-4480 구리 구리청과㈜ 031-556-2000 수원 경기청과㈜ 031-236-3700 원주 합동청과㈜ 033-742-2325 익산 (자)이리청과 063-855-3202 창원 ㈜창원청과시장 055-276-9191 전주 전주청과물㈜ 063-275-0911 천안 천안청과㈜ 041-583-0071
청주 청주청과시장㈜ 043-266-5813 충주 충주중원청과㈜ 043-853-8149 안산 안산농산물㈜ 031-408-1123 영천 영천농산물도매시장㈜ 054-333-6111